

생명과학부 안현수 씨,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생 선정

- 의생명과학분야 장학생... 향후 5학기까지 학기당 1000만원 장학금 혜택



▲ 2023년 아산사회복지재단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에 선정된 지스트 생명과학부 안현수 씨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 **생명과학부 석박통합과정의 안현수 씨** (기능유전체학 실험실 소속, 지도교수: 박지환)가 **2023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생명과학 분야 대학원 장학생에 선정됐다.**

안 씨는 올해부터 5개 학기 동안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학기당 1,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.

지스트에서는 지난해 안 씨와 같은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김경대 씨와 의생명공학과 통합과정 이영주 씨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바 있다.

안현수 씨는 생물정보학 데이터를 활용해 생명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, 점점 증가하고 있는 **공공 생물정보학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.**

이러한 연구로 개발된 데이터 분석기법들은 공공 생물정보학 데이터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고, 최신 인공지능 기술들의 적용과 개발을 직접적으로 도와 기존에 잘 연구되지 못한 생명현상을 재조명하고 희소병의 분자생물학적 병리기전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

작년 2월 28일 생물정보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'브리핑스 인 바이오인포매틱스 (Briefings in Bioinformatics)'에 발표된 연구 성과도 그 중 하나로, 안현수 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이 논문은 **신종 코로나바이러스(코로나19) 유전체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유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백질 후보군을 제시했다.**

안현수 씨는 “좋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신 박지환 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”며 “앞으로 다양한 생물정보학 데이터와 분석기술을 활용하고, 발전시켜서 **새로운 시각으로 생명현상을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고 싶다**”고 소감을 전했다.

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생명과학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현재 의생명과학 분야 대학원 장학생은 국내 41명, 해외 22명 등 총 63명으로 졸업 시까지 매년 2000만~4000만원을 지원받는다.

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월 23일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3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으며, 대학원생 69명, 대학생 433명 등 총 502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.

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77년 재단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, 지금까지 3만6000여명의 학생에게 총 85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.